**<죽음으로 읽는 서양 근현대 철학사>**

**제8강**

***제일철학으로서의 윤리**

레비나스는 자신의 윤리를 제일철학이라고, 형이상학(métaphysique)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레비나스의 윤리가 형이상학이라는 사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할까? 레비나스의 윤리는 초월(transcendance) 혹은 피안(au-delà)의 발생을, 즉 메타(méta)의 발생을 다룬다. 즉 레비나스는 도덕을 제안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의 윤리는 도덕이나 윤리(학)들과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레비나스의 윤리는 도덕이나 윤리 이론들의 방향을 정해주는 토대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레비나스의 윤리는 제일철학, 즉 형이상학이다. 레비나스의 윤리는 도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것, 그리고 침입의 사건, 폭력적인 대답의 강제 등의 양태로 나타나는 인간들 간의 관계, 즉 타인과 나의 만남을 무한과의 관계로서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타인의 얼굴**

얼굴은 무한의 흔적이기 때문에 모든 규정을 차단하며 방해한다. 헐벗음(nudité)으로서의 얼굴은 특성이 없으며, 알아볼 수도 없고,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것은 곧 우리가 타인의 얼굴에 대한 그 어떠한 경험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얼굴은 경험불가능하며, 인식불가능한 것이다.

"Alors sous ce visage rosissant je sentais se réserver comme un gouffre l'inexhaustible espace des soirs où je n'avais pas connu Albertine. Je pouvais bien prendre Albertine sur mes genoux, tenir sa tête dans mes mains, je pouvais la caresser, passer longuement mes mains sur elle, mais, comme si j'eusse manié une pierre qui enferme la salure des océans immémoriaux ou le rayon d'une étoile, je sentais que je touchais seulement l'enveloppe close d'un être qui par l'intérieur accédait à l'infini."(Marcel Proust, *La prisonière*,(*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V*), pléiade III, p. 387.)
("그 당시 붉어지고 있는 그 얼굴 속에서 나는 내가 알베르틴을 알지 못했던 밤들의 한없는 공간이 마치 심연처럼 남겨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분명히 알베르틴을 내 무릎 위에 놓을 수 있었고, 그녀의 머리를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어루만질 수 있었고, 그녀에게 오랫동안 내 손을 갖다 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마치 내가 태곳적 대해의 소금기나 별빛을 감추고 있는 돌멩이를 더듬기라도 했던 것처럼- 내부에서 무한으로 다가갔던 존재를 밀봉하고 있는 한갓 껍데기만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인용문에 의하면, 화자는 알베르틴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녀를 만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무한에 손댈 수는 없었다. 요컨대, 화자는 규정가능하며, 경험가능한 껍데기가 지니고 있는 규정불가능하며, 경험불가능한 무한의 흔적을 엿본 것이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인의 얼굴(visage)은 무한의 흔적이다. 얼굴은 무한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모든 규정을, 모든 인식을 차단하며 방해한다. 규정될 수 있는 속성이나 특성이

없는 타자의 얼굴은 헐벗음(nudit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헐벗음으로서의 얼굴은 특성이 없기에, 식별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을, 타인의 얼굴을 규정의 가능성으로부터, 개념화의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인의 얼굴은 모든 규정과 개념화의 질서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의 개체성의 조건으로서의 타인의 얼굴**

타자와 만나는 주체는 순수한 수동성이자 타자를 위한 책임이며, 또한 타자로부터(à partir d'autrui) 혹은 타자덕분에(grâce à autrui) 발생하는 주체이다. 그런데 타인과 혹은 타인의 얼굴과 관계하는 주체, 즉 타인에 의해서 탄생하는 주체는 사실 고통받는 주체이다. 왜냐하면,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인에 의한 주체의 '발생' 사건은 동시에 타인에 의한 주체의 '소멸'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만 할 것은 주체는 타인에게 노출되기 이전에, 내재성으로부터 추방되기 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노출 자체가, 이러한 쫓겨남 자체가 바로 주체의 구성사건이라는 사실이다. 주체는 타인을 향한 파열(éclatement vers autrui)이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파열로서의 주체는 본의 아니게 노출되며, 본의 아니게 기호(signe)를 주는, 그리고 그 자신이 기호가 되는 주체, 즉 '타인을 위하여(pour auturi)' 사라지는 주체이다. 이와 같이, 레비나스가 제시하는 타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주체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폭력이 있다. 왜냐하면 타인이 얼굴에 간직하고 있는 무한의 흔적은 유한한 주체를 괴롭히고 방해하러, 유한한 주체에게 폭력을 행사하러 오기 때문이다. 타자와의 관계는 주체를 그 지위에 있어서 전복시키고, 폐위시킨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레비나스의 주체는 *태어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주체이다.

타인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타인을 위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윤리적 주체는 고통받는 주체이다. 왜냐하면 나를 불러낸 타인의 얼굴은 나를 불러내어 파열시키는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가 야기하는 폭력 속에서 주체가 겪는 고통은 주체의 책임과 더불어 배가된다. 레비나스의 주체는 대답하는 구조를 갖는데, 대답하는 구조란 나를 사로잡는 얼굴이 나를 문제 삼는 구조이다. 그런데, 타인이 나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곧 타인이 나에게 물음을 던진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 물음에 대답해야만 한다는 것을, 즉 이 물음을 떠맡고 책임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내 대답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결국 타자에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나의 의식은 대답이나 비-대답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한다. 이것은 곧 내 의식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타인의 부름에 대답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 즉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관통하는 타자에게 사로잡힌 주체성은 타자의 부름에 '대답해야만-함(l'avoir-à-répondre)'의 구조를 갖는다. 이와 같이 타인의 부름에 내가 (의식적으로)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의식적으로) 회피하든지 안 하든지 타인의 부름을 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존재' 비판**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Dasein)는 타인의 고유한 죽음을 결코 떠맡을 수 없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하이데거에게서 나의 자기성, 즉 주체의 주체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죽음과 대면하는 실존론적 유아론(solipsisme existential)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현존재를 고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존재의 각자성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대면한 현존재의 순수한 고립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립 속에서  나의 죽음을 떠맡을 사람은 오직 나일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이데거에게서 주체의 죽음에 대한 관계는 마치 주체의 개별화의 원리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죽음과의 관계는 나를 개별화시킨다.

레비나스가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에게서 죽음을 향한 존재가 가장 고유한 나의 가능성을 위한 책임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문제삼는다.(DQVI, p. 82-83.) 그런데 하이데거가 죽음을 나의 가능성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나의 가능성(une possibilité mienne)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죽음은 그것이 있는 한 언제나 본질적으로 나의 것이다."(Heidegger, *Etre et temps*, p. 194.) 레비나스가 <시간과 타자>에서 "하이데거에게서 죽음은 발이 말하는 것처럼 '가능성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다"(TA, p. 92, note 5.)라고 확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L'être pour la mort, dans l'existence authentique de Heidegger, est une lucidité suprême et, par là, une virilité suprême. C'est l'assomption de la dernière possibilité de l'existence par le Dasein, qui rend par conséquent possibles toutes les autres possibilités » (TA, p. 57.)
("죽음으로 향한 존재는 하이데거의 본래적 실존에 있어서 최고의 밝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최고의 남성다운 힘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가능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현존재에 의한 실종의 최종 가능성의 받아들임인 것이다.")

레비나스는 죽음을 대면한 현존재의 남성다운 용기 속에서 유아론(solipsisme)의 징후를 본다.

**4. 타인의 죽음**

하이데거는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한다. 반면에, 레비나스는 "제일 죽음(la mort première)은 바로 타자의 죽음(la mort de l'autre)이다"라고 주장한다.(DMT, p. 53.)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의 고유성은 존재의 고유성으로부터 온다. 반면에, 레비나스에 의하면 (윤리적) 주체의 고유성은 타자의 죽음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윤리적) 주체의 고유성이 타인의 죽음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은 곧 나의 가장 고유한 개별성이 내가 나 자신이 죽음과 맺는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타인의 죽음과 맺는 관계 속에서, 즉 '타자의 죽음에 대한 나의 책임'(ma responsabilité pour la mort de l'autre)(DMT, p. 133.)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레비나스가 제일 죽음이 타인의 죽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왜 타인의 죽음이 제일 죽음인가? 왜냐하면 내가 고유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죽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죽음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인의 죽음은 '미지의 것(l'inconnu)'인데, 미지의 것은 "대상화되고, 주제화되고, 사념되거나 보이지 않는다."(DMT, p. 26.) 말하자면, 나는 미지의 것으로서의 타인의 죽음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왜 타인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타인의 죽음은 얼굴을 담지하고 있는 누군가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Le néant de la mort n'est-il pas nudité même du visage du prochain ? [⋯] La

proximité du prochain n'est-elle pas dans ma responsabilité pour sa mort?"(DMT, p. 132-133.)
("죽음의 무는 이웃의 얼굴의 헐벗음 자체가 아닌가? [...] 이웃의 가까움은 그의 죽음에 대한 나의 책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왜 내가 타인의 죽음에 의해서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타인의 얼굴은 나를 유일한 주체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Nous rencontrons la mort dans le visage d'autrui."(DMT, p. 121.)
("우리는 타인의 얼굴 속에서 죽음을 만난다.")

"Quelque chose de nouveau se produit en effet ; mais pour nous qui assistons à la mort de l'autre homme. Nous ne saurions jamais ce qu'elle signifie pour le mort lui-même. Nous ne savons même pas ce qu'il peut y avoir de légitime dans la formule : pour le mort lui-même. Mais pour le survivant, il y a dans la mort d'autrui sa disparition et la solitude extrême de cette disparition. Je pense que l'*Humain* consiste précisément à s'ouvrir à la mort de l'autre, à se préoccuper de sa mort."(AT, p. 161.).
("다른 인간의 죽음을 목격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상 새로운 어떤 것이 발생한다. 우리는 타인이 죽음을 목격하는 가운데 죽은 자 자신에게 있어서 표현될 수 있는 정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에게 있어서 타인의 죽음 속에는 타인의 사라짐이, 그리고 이러한 사라짐이라는 극단적인 고독이 있다. 나는 인간적인 것이 바로 타자의 죽음에로 열리는 것에 있다고, 타자의 죽음에 대해 근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Unicité de l'*unique dans son genre* - ou unicité ayant rompu tout genre - au sens où l'aimé est unique pour l'aimant. L'unicité qui, à l'amant, signifie la crainte pour la mort de l'aimé."(AT, p. 128-129.)
("사랑받는 이가 사랑하는 이에게 있어서 유일하다는 의미에서의 그것의 *유 안에서 유일한* 것의 유일성(또는 모든 유를 파기시킨 유일성).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는 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유일성.")

타인의 유일성은 죽음에 의해서 고립된(esseulé) 유일성, 즉 죽음에 의해서 홀로된 유일성이다.

"Je suis responsable de l'autre en tant qu'il est mortel."(DMT, p. 53.)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의 타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

"Cette proximité de l'autre est signifiance du visage - signifiance à préciser - signifiant d'emblée d'au-delà des formes plastiques qui le recouvrent de leur présence dans la perception. Avant toute expression particulière, - et sous toute expression particulière qui - déjà pose et contenance donnée à soi - recouvre et

protège, nudité et dénuement de l'expression comme telle, c'est-à-dire exposition extrême, le sans-défense même. Exposition extrême – avant toute visée humaine – comme à un tir "à bout portant". Extradition d'investi et de traqué – de traqué avant toute traque et avant toute battue. Visage dans sa droiture du *faire* face à…, naissance latente de la "distance la plus courte entre deux points" : droiture de l'exposition à la mort invisible. […] La nudité ou l'exposition sans défense du visage, son abandon de victime esseulée et la rupture des formes dans sa mortalité. Mais cet *en face* du visage dans son expression – dans sa mortalité – m'assigne, me demande, me réclame : comme si la mort invisible à qui fait face le visage d'autrui – pure altérité séparée, en quelque façon, de tout ensemble – était mon affaire. Comme si, ignorée d'autrui, que déjà dans la nudité de son visage, elle concerne, elle "me regardait" avant sa confrontation avec moi, avant d'être la mort qui me dévisage moi-même. La mort de l'autre me met en cause et en question comme si de cette mort, invisible à l'autre qui s'y expose, je devenais de par mon indifférence, le complice ; et comme si, avant même que de lui être voué moi-même, j'avais à répondre de cette mort de l'autre, et à ne pas laisser autrui à la solitude. C'est précisément dans ce rappel de ma responsabilité par le visage qui m'assigne, qui me demande, qui me réclame ; c'est dans cette mise en question, qu'autrui est prochain."(DQVI, p. 244-245.)
("타자의 이러한 가까움은 지각 속에서의 형태들의 현전으로 타자를 은폐시키는 조형적 형태의 피안에서 단번에 의미하는 얼굴의 의미 작용이다.(이 의미 작용을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 모든 개별적인 표현에 앞서는 (그리고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용량을 정립시키며) 가리우고 보호하는 모든 개별적인 표현의 아래에 있는 헐벗음과 그 자체로서의 표현이라는 가난, 즉 극단적인 표현, 저항할 수 없음 그 자체. '지근거리에서의' 겨냥과도 같은 (인간적인 모든 사념에 앞서는) 극단적인 표현. (모든 추격에 앞서서 그리고 모든 수색에 앞서서) 포위되고 추격된 범인인도. …에게 마주 *대하기*라는 그것의 곧음 속에 있는 얼굴, '두 점들 간의 가장 짧은 거리'의 잠재적 탄생. 즉 보이지 않는 죽음에로의 노출이라는 곧음. […] 얼굴의 저항할 수 없는 헐벗음 또는 노출, 홀로된 피해자라는 얼굴의 유기, 그리고 얼굴의 죽을 수밖에 없음 속에 있는 형태들의 파열. 그러나 <u>자신의 표현 속에서의</u> (<u>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음 속에서의</u>) 얼굴의 이러한 *직면*은 나를 소환하며, 내게 요구하며, 나를 부른다. 마치 타인의 얼굴이 마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죽음(어떤 방식에서는 모든 전체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타자성)이 나의 소관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마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즉 타인의 얼굴의 헐벗음 속에서 이미 타인과 관계하는 죽음이 나와 죽음의 대면 이전에, 나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죽임이기에 앞서서 '나를 바라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마치 내가 나의 무관심에 의해서타자가 거기에 노출되어있는 타자에게 보이지 않는 이 죽음의 공범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타자의 죽음은 나를 문제시하며, 나를 문제로 삼는다. 마치 심지어 타자에게 나 자신이 바쳐지기 이전에 타자의 이 죽음에 내가 대답해야만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또 타인을 고독 속에 방치하지 말아야만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를 소환하며, 내게 요구하며, 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얼굴에 의한 나의 책임이라는 이 소집명령이다. 타인이 이웃인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삼음 속에서이다.")

“Dans la culpabilité de survivant, la mort de l’autre est mon affaire.”(DMT, p. 49.).
(“살아 남은 자의 죄책감 속에서, 타자의 죽음은 나의 소관이다.”)

“L’inquiétude pour la mort d’autrui passe avant le souci pour soi. Humain du mourir pour l’autre qui serait le sens même de l’amour dans sa responsabilité pour le prochain et, peut-être, l’inflexion primordiale de l’affectif comme tel. […] La relation à autrui dans le sacrifice où la mort de l’autre préoccupe l’être-là humain avant sa propre mort […]”(EN, p. 213-214.)
(“타인의 죽음에 대한 근심은 자신에 대한 염려에 앞서서 나타난다. 타자를 위해 죽기라는 인간적인 것은 이웃에 대한 그것의 책임 속에서 사랑의 의미 자체일 것이며, 또 아마도 그 자체로서의 정서적인 것의 근원적 굴절일 것이다. […] 인간의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앞서서 타자의 죽음을 먼저 염려하는 희생, 이러한 희생 속에서의 타인과의 관계. […]”)

나를 고립시킴으로써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의 고유한 죽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타인의 절대적 고독이다. 요컨대, 내가 “유일하고, 대체불가능하며, 나이지 타자가 아닌 것”(“unique, irremplaçable, moi et pas un autre”)(AE, p. 67)은 바로 타인의 죽음에 대답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La mort que la fin signifie ne saurait mesurer toute la portée de la mort qu’en se faisant responsabilité pour autrui - par laquelle en réalité on se fait soi-même : on se fait soi-même par cette responsabilité incessible, non délégable. C’est de la mort de l’autre que je suis responsable au point de m’inclure dans la mort”(DMT, p.52-53.)
(“최후가 의미하는 죽음은 오직 타인에 대한 책임이 됨으로써만 죽음의 모든 무게를 지니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타인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양도할 수 없고, 위임할 수 없는 책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내가 죽음 속에 포함될 정도로까지 나는 타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

“Une responsabilité pour autrui dans le <u>supporter</u> son malheur ou sa fin comme si on en était coupable. Ultime proximité. Survivre comme coupable. Dans ce sens, le sacrifice pour autrui créerait avec la mort d’autrui un autre rapport : responsabilité qui serait peut-être le pourquoi l’on peut mourir. Dans la culpabilité de survivant, la mort de l’autre est mon affaire. *Ma* mort est ma *part* dans la mort d’autrui et dans ma mort je meurs cette mort qui est ma faute”(DMT, p. 49.)
(“타인의 불행과 타인의 최후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죄이기라도 한 것처럼 <u>짊어지는 것</u> 속에서의 타인에 대한 책임. 궁극적인 가까움. 죄지은 살아남기. 이러한 의미에서 타인을 위한 희생은 타인의 죽음과 더불어 또 다른 관계를 창조하리라. 즉 살아남은 이의 죄의식 속에서, 타자의 죽음은 나의 소관이다. *나의* 죽음은 타인의 죽음 속에서 나의 *몫*이며, 또 나의 죽음 속에서 나는 나의 잘못인 이 죽음을 죽는다.”)

나는 나 자신의 죽음에 바쳐지기 이전에 타인의 죽음에 먼저 바쳐졌다. 왜냐하면 “타자의 죽음이 나의 죽음보다 더 나를 촉발시키기”(DMT, p. 121.) 때문이며, 따라서 “나는 존재해야만-하기 이전에(avant d’avoir-à-être) 타자들의 죽음에 대답해야만 하기”(DQVI, p. 256.) 때문이다. 죽기는 “타인을-위해-죽기”(mourir-pour-l’autre)이다.(EN, p. 240.) 죽기는 이미 언제나 “미친 생각”(la folle pensée)으로까지 통하게 되는 “희생”(le sacrifice)인 것이다.(EN, p. 240.) 타자의 죽음이 나의 고유한 죽음보다도 더 앞서서 나를 근심케 한다는 미친 생각, 타인을 위해 죽기가, 타인의 죽음을 죽기가 나의 본래적인 죽음에 선행한다는 미친 생각.(다음을 참조: EN, p. 214.)

**++참고문헌:**

**1. 레비나스**

**TA**: *Le temps et l’autre*(시간과 타자), Paris, PUF, « Quadrige », 1983(1er éd. in «Le choix, le monde, l’existence», Cahiers du Collège philosophique, n°1, 1948.).

**AE**: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존재와는 다르게 또는 존재사건의 피안), La Haye, M. Nijhof, 1974.

**DQVI**: *De Dieu qui vient à l’idée*(이념에 오는 신에 관하여), Paris, Vrin, 1982.

**EN**: *Entre nous. Essais sur le penser-à-l’autre*(우리 사이. 타자-사유에 관한 시론), Paris, Grasset, 1991.

**DMT**: *Dieu, la mort et le temps*(신, 죽음 그리고 시간), Paris, Grasset, 1993.

**AT**: *Altérité et Transcendance*(타자성과 초월), Montpellier, Fata Morgana, 1995.

**2. 그 외의 저자들**

Heidegger, *Etre et temps*, tr. fr. E. Martineau, Paris, Authentica, 1985.

Marcel Proust, *La prisonière*,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V), Pléiade III.